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잠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 연속극 <미쓰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트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민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 <재>	11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1~2부 <소녀와 롤스토티>	12 00 MBC 뉴스 1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디큐로 만나는 세계
00 KBS 걸작서 <사랑을 믿어요> <재>	10 퀴즈쇼 사중사 <재>	1 05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토론	30 도전! 슈퍼대디
00 KBS 뉴스 10 2011 광주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00 KBS 뉴스타임 05 엘리먼트 헌터 <재>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2 40 공간 특별한 세상 스페셜 55 원종근의 아름다운초대 스페셜 50 MBC 뉴스	00 SBS 뉴스 10 넷트워킹 현장 고해미 보인다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00 TV 유치원 30 딸기가 좋아	4 00 뽀뽀뽀 아이즈야 30 마법천주문	00 안녕 자두야 30 내미음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 릴레이	5 00 앙코르 MBC 스페셜 <가리봉동의 꿈>	00 SBS 뉴스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초미용 헬렌 투 가오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0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터치 락피부파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1대 100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기자가 만난 세상 <현정 21>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활화 드라마 <포세이돈>	9 55 MBC 활화특별기획 <계백>	55 활화드라마 <무사 백동수>
00 시사기획 KBS 10 50 아름다운 사람들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0	15 감성장
00 KBS 뉴스 라인 40 집중인터뷰 이시람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1 10 MBC 뉴스 24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프라임 <우리 팀의 독립선언>	50 나이트 라인

# 영암 F1 경주장 TV 촬영지로도 인기

## 출발드림팀 등 촬영

내달 14일 시작되는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앞두고 대회 장소인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이 TV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MBC 주말 드라마 '애정만만세' 제작진이 20일부터 이틀간 KIC에서 프로그램을 찍는다고 밝혔다.

또 KBS-2TV '출발드림팀 시즌2'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촬영될 예정이다. '애정만만세'는 드라마 속에서 모터스포츠 팬으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가 KIC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출발드림팀 시즌2'는 일대일 카트 경주와 드리프트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모터스포츠의 묘미를 선사한다.

대회조직위는 "KIC가 한국 모터스포츠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경주 대회 외에 방송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주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KIC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 D-20 성공기원 빅이벤트'가 열린다. 1부에는 한국 DDTG 챔피언십 5전이 펼쳐지고, 2부에는 그리드 걸(Grid girl) 선발대회 및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연남뉴스

## KBS '한국인의 밥상' 순대의 역사 돌아본다

'한국인의 밥상'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백성의 인심을 담다-순대'를 통해 서민들의 기초식품인 순대의 역사를 돌아본다.

'병천순대'로 유명한 천안시 병천면에서 어머니의 대를 이어 순대를 만드는 삼정재의 이야기를 전한다.

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소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에 피곤한 몸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순댓국밥 덕분이다.

또 보부상들의 발길 따라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백암순대의 맛을 따라가 보고, 서울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매콤한 맛의 순대볶음을 만나본다. <연남뉴스

### 제20회 光日盃 광주 전반기 직방비둑대회

빠뜨린 수순 하나 2회전 2국 2보(21~41)

白 조시균 5단 (전남교사회)    黑 강상원 5단 (한국전력)

혹 21이 포석의 기로였다. 이 수로는 한 줄 오른쪽에 두어 중국식을 펼치는 것이 보통인데 강상원 5단은 좌변의 백 모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백 24, 26은 자체에서 모양을 갖추자는 것으로 조시균 5단의 실리 취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금 얽은 모습으로 이 수로는 '참고도1'처럼 백 1로 호구치고 7까지 두는 것이 나아 보인다. 흑 2로 3에 누는 것은 백 2에 늘어 붙어준다. 백 30으로 밀어 올렸을 때 그냥 흑 31로

잡힌 수로는 먼저 '참고도 2'의 흑 1로 단순할 곳. 그런 다음 흑 3으로 잡히면 백 4에는 5로 끊는 수가 성립하고 11까지 흑이 두렵다. 실전은 백 38까지 백이 편한 모습이다. 흑 41은 무슨 뜻일까.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0일(음 8월 23일 戊寅)

子	36년생 직접해야 생각대로 이를 수 있다. 48년생 새 문서를 다양하게 활용하라. 60년생 눈 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행동하면 곤란하다. 72년생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은 요령껏 처리하면 된다. 84년생 건설한 의식주 생활을 지양할 때다. 행운의 숫자: 59, 50
丑	37년생 화는 입을 떠나나오고 병은 입을 따라 들어간다. 49년생 절자를 밟아라. 61년생 가림바는 폭풍우가 가라앉는다는 징후이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85년생 주머니의 열쇠로 목표에 진입하라. 행운의 숫자: 67, 96
寅	38년생 독 게고 장 썩을까 두렵다. 50년생 상황은 백주 대낮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62년생 남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라. 74년생 달리는 말도 체력질을 하라. 행운의 숫자: 77, 05
卯	39년생 지나친 경계성은 심신을 피로하게 한다. 51년생 언제나 웃고 있는 자는 사람을 잘 속이느니라. 63년생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75년생 뒷말하면 주변인의 명예 대항할 필요도 없다. 행운의 숫자: 23, 39
辰	40년생 두 갈래 길에서 헤매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52년생 자체 공간에서의 생활 체조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4년생 다 된 밤에 재 뿌리지 마라. 76년생 길은 이 더하니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86, 88
巳	41년생 참을 수 있는 능력은 건강에도 유리하다. 53년생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 65년생 활력이 나타날 기운이 비추니 역량을 갖춰라. 66년생 두레박 줄이 짧으면 길은 우물물을 뜨지 못한다. 78년생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98, 30
午	43년생 행차 뒤에 나발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55년생 구체적이라면 실행해 보라. 67년생 행동을 말로 옮기는 것보다도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어려우니라. 79년생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52, 48
未	44년생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할 말은 해라. 56년생 천으로 전 글 복이고 만 일로 만 글 복이느니라. 68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좋은 쪽에 있다. 80년생 큰 복이라야 큰 소리가 난다. 행운의 숫자: 20, 90
申	45년생 의외의 재물이 들어온다면 다수인을 위해서 써라. 57년생 당장 당기면 곱간이 달다. 69년생 작은 것을 주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 81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이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32, 66
酉	46년생 삶에는 분명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58년생 가정에서의 행복감이 직장에서의 포용력으로 발전 된다. 70년생 슬며시 없는 사람을 사귀면 손해볼 수 있다. 82년생 낙숫물이 맛들을 뚫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17, 91
戌	47년생 정당한 대가만큼 챙겨도 된다. 59년생 허황은 이익 다름으로 인해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71년생 정성의 효과 가 나타나서 웃음 짓게 된다. 83년생 중령이를 과하게 구라도 모 여드느니라. 행운의 숫자: 89, 88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어	오하오우 니혼고
<h3>거시기/거시키</h3> <p>거 뭐냐? 거시기 말이여, 거시기 한담개.</p> <p>주로 전라도에서 말하다가 얼른 생각이 안 날 때, "저 거시기....." 라고 하는데 '거시기'는 엄연히 표준어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거시키'가 표준어였지만 현재는 거센소리가 나지 않은 형태 '거시기'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4항에서는, 제3항이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센소리가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푼침'은 '분침'으로 '거시키'는 '거시기'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p> <p>'거시기'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전라도 사투리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시키'는 입에 울리기 거북한 어떤 낱말을 지칭할 때나 얼른 떠오르지 않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킬 때 등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시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p>	<h3>Oh, I know what I wanted to ask</h3> <p>아, 물어볼게 있는데요</p> <p>A : How come this hotel has no fourth floor? B : Four is an unlucky number here, 'Four' sounds like 'death' in Chinese. Hotels often have no fourth floor. A : I see. Oh, I know what I wanted to ask. How much should I tip this guy? B : People don't usually tip here, but you can. \$2 should be more than enough.</p> <p>A : 도대체 왜 이 호텔에는 4층이 없죠? B : 4층은 여기서는 안좋은 숫자거든요. '4'는 '죽음'을 의미 하거든요. 모든 호텔은 대개 4층이 없어요. A : 그렇군요. 아 물어볼게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팁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B : 여기서는 보통 팁을 받지 않습니다. 2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p> <p>* 도대체 왜 그렇게 늦는거죠? = How come you're so late? * more than enough = too much</p>	<h3>左右爲難 zuǒ yòu wéi nán</h3> <p>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때</p> <p>그럴 때 이쪽, 저쪽이 손해일게 뻔하고 안하자니 약속 해놓은 것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进退两难(진퇴양난)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중국어에서 左右爲難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기 곤란하다'는 말입니다.</p> <p>양자 선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난처함이 뻔한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식의 갈등의 상황에서는 일단 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남아지는 갈등은 하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만을 갖게 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p>	<h3>使い方を教えてください。</h3> <p>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p> <p>A : この洗濯機の 使い方が 分かりませんか。 B : いいえ、分かりません。教えてください。 A : 水と洗剤を入れて、スタートボタンを 押してください。 B : はい、分かりました。簡単ですね。</p> <p>A : 이 세탁기 사용법을 알니까? B : 아니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A : 물과 세제를 넣고 시작 단추를 눌러주세요. B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군요.</p> <p>[단어정리] 洗濯機 세탁기 使い方 사용법 教える 가르치다 習う 배우다 洗剤を入れる 세제를 넣다 スタートボタンを 押す 시작 단추를 누르다(≠×) * 동사의ます형 + 方 (~하는 법) 使い方(사용법) 書き方(쓰는 법) 読み方(읽는 법)</p>
<전남언어문화교육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